



이 학 영 | 이학박사/ 고려대 수생태해설사 교수
우리협회 건설분과부위원장
(koreafish@hotmail.com)

우리 하천 우리 물고기

겨울 호수의 요정 - 빙어

학 명 : *Hypomesus nipponensis*

지역 방언 : 공지, 민물멸치, 보리붕어, 병어, 핑어 등

분 류 : 바다빙어목 바다빙어과

자생 수역 : 전국의 댐, 저수지, 기수 수역 등

주 서식장소 : 물이 맑고 수심이 깊고 수온이 낮은 곳

번 식 기 : 2-4월

크 기 : 10-15 센티

주로 섭씨 6~10도 내외의 차가운 물에서만 서식하는 냉수 어종인 빙어는 근래 성공한 지역축제의 주체가 되어 그 위상을 겨울 하천에 드높이고 있는 물고기다. 겉보기에도 매우 날씬하고 체색도 은빛 찬란한 빙어는 겨울에는 먹이를 잘 먹지 않아 몸이 투명하게 비칠 정도로 깨끗하게 생겼다. 사람으로 친다면 가히 몸짱 중의 몸짱인 셈이다.

몸은 뒤로 매우 가늘고 길며 등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 사이를 보면 아주 작은 지느러미가 하나 더 달려 있는데 이를 기름지느러미라고 한다. 이는 빙어와 비슷하게 생긴 다른 어종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원래 빙어는 기수와 담수 수역에 모두 서식하며 여름에는 수온이 낮은 깊은 물에 살고 있다가 봄철 번식기가 되면 얕은 물로 거슬러 올라가 산란을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빙어는 내수면에 갇혀 지내는 육

붕형이 되었다.

새우 등 갑각류 및 동물성 플랑크톤, 작은 곤충 등을 잡아 먹고 살며 원래 해방 전 함경남도 용흥강에서 남한으로도 이식되어 현재는 전국의 호수, 저수지, 수심이 깊은 강 등에서 식하고 있다. 소양호, 제천 의림지, 강화 장흥지, 춘천호, 함천호 등이 그 주요 서식지다.

빙어를 고서에서는 과어(瓜魚)라고 하였는데 이는 빙어의 몸에서 오이의 향이 난다고 해서 오이 과(瓜)자가 붙여진 것이며 제천에서는 공어(空魚)로도 불리는데 속이 빈 물고기라는 뜻으로 겨울에 먹이를 잘 먹지 않아 이런 이름이 붙었다.

빙어는 요리로도 인기가 있고 특히 겨울철 낚시 어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보통 때는 좀처럼 보기 힘든 이 친구는 겨울바람이 불고 강물이 얼기 시작하면 비로소 강태공들에게 그 모습을 나타낸다. 간단한 낚시 도구만 있으면 여자나 어린 이들도 쉽게 낚을 수가 있다.

이에 해마다 강원도 인제군에서는 1월말을 전후하여 인제군 남면 소양호(신남 선착장)에서 빙어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인제군 빙어축제 홈페이지에 가면 필자가 쓴 <민물고기 이야기> 코너가 있어 여러 방문자들에게 정보를 주고 있다.

겨울철 포장마차에는 빙어 회를 파는 곳이 많은데, 이 빙

어 무리 속에 참붕어, 피라미, 치리 등의 물고기도 섞여 있다. 2-3급수에도 잘 사는 빙어도 디스토마에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지만 한 마리에 엄청난 디스토마 균이 있을 수도 있는 치리나 참붕어를 빙어인줄 착각하고 회로 먹는 것을 종종 발견

할 수 있다. 빙어는 다른 물고기와 달리 기름지느러미가 있으니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수명은 대부분 일 년인데 간혹 2-3년 장수(?)하는 개체들도 있다. 🐟

춤추는 겨울 요정

상감 이학영 / 시인

냉수의 요정 빙어가
아리따운 자태로
강물 위로 몰려옵니다.

춤다는 한철
그 모습을 반짝입니다.

이들이 어우러져 헤엄칠 때
은반 위에 춤추는
살결 하얀 무희들이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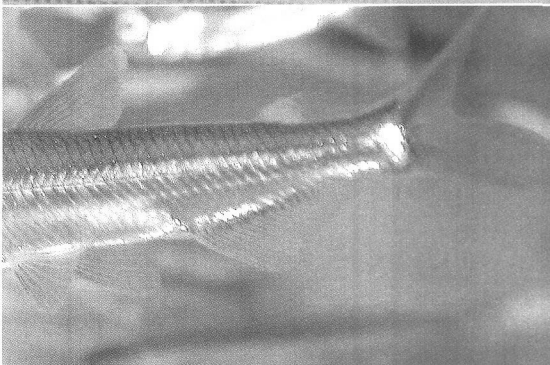
한해만 추고 사라지기에
그 춤은 더욱
애절합니다.



〈그림 1〉빙어 빙어는 주로 무리를 이루어 살며 새해 들어 가장 먼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빙어축제의 주인공이다.



〈그림 2〉빙어회를 파는 포장마차 술꾼들은 목젓이 널뛰듯 하여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법. 여기서 한잔 걸칠라 치면 주의하시라. 빙어 틈새에 종종 다른 물고기들이 섞여 있어 그대의 건강을 위협하기도 한다.



〈그림 3〉기름지느러미 원래 바다를 오가는 은어. 빙어 등의 물고기에는 등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 사이에 작게 돌아난 기름지느러미가 있다. 이 기름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빙어가 아니니 잘 구분하여야 한다.



〈그림 4〉KBS TV 〈소비자고발〉 프로에서 더러운 물에서도 빙어가 잘 사니 이곳의 빙어는 잡아다 팔면 안 된다고 역설하는 필자